

Global Strategy Report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CONTENTS

목 차

요 약

I. 조사배경 / 1

- 1 | 1. 금융위기 전후 세계경제환경
- 3 | 2. 우리나라의 수출환경

II.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의 수출패턴 분석 / 7

- 7 | 1. 상품 수출구조 변화
- 12 | 2. 서비스 수출구조 변화

III.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분석 / 17

- 17 | 1. 상품 수출경쟁력
- 25 | 2. 서비스 수출경쟁력

IV. 평가 및 향후 시장전략 / 27

- 27 | 1. 평가
- 29 | 2. 향후 시장전략

참고문헌 / 38

요 약

- 우리나라 상품 수출증가율은 금융위기 전(00~08년) 연평균 12.6%를 기록하였으나, 이후(11~15년)에는 6.2%로 하락
 - 동기간 중 경제성장률이 4.8%→3.0%로 하였으나, 수출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여, 경제성장률에 대한 수출 탄성치도 2.6→2.1로 하락
 - 수출 탄성치의 하락은 경제성장률과 수출의 연결고리 약화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경제성장만으로는 수출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
- 우리나라의 수출은 신흥시장에 대한 의존성 심화, 주력수출품목 집중으로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인한 위험 분산효과가 결여
 -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세계수출은 중국, 베트남 등 신흥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우리의 국별 수출은 미국 '04년(16.9%)→'15년(13.3%), 독일(3.3%→1.2%), 영국(2.2%→1.4%), 캐나다(1.4%→0.9%) 등 주요 선진국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중국(19.6%→26.0%)과 베트남(1.3%→5.3%)은 증가세
 - 특히 신흥국에서도 중국('15년 기준 26.0%), 아세안(14.2%)에 편중되어 있어, 중동(5.8%), 중남미(5.8%), CIS(1.3%), 아프리카(2.0%)에 대한 수출시장 다양화 전략수립이 필요
-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규모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으로, '15년에도 적자폭이 확대
 - 우리나라는 총수출에서 서비스 비중이 금융위기전('00~08년) 평균 16.0%에서 이후('11~'15년) 14.0%로 하락
 -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는 자재권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미국, EU 등 선진국에게 적자구조가 고착화
 - * 금융위기 전('00~08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비중은 미국 28.5%→이후('11~'15년) 30.3%, 일본 14.4%→15.9%, 독일 14.4%→15.9%로 상승

□ 금융위기 전후 무역특화지수 절대치 측면에서 기계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

- 금융위기 전후를 비교해보면, 기계류, 금속 및 동제품, 화학제품 등 수출경쟁력은 다소 개선*
 - * 기계류(0.147→0.221), 금속 및 동제품(-0.219→-0.021), 화학제품(-0.218→-0.026)
 - * 경쟁력은 동일군이지만 세부품목에 따라 다른 것으로 평가(예: 화학제품 중 유기화학품(HS코드: 29), 정유, 조제향료, 화장품류(33), 플라스틱(HS코드: 39), 고무와 그 제품(HS코드: 40)에서 경쟁력이 나타남.)
- 반면, 섬유 및 의류, 잡제품은 수출특화→수입특화로 전환되었으며,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1차산품은 수입특화가 강화

□ 우리의 서비스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수입특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아직까지 수출경쟁력은 약한 것으로 평가*

- * 서비스 전체 무역특화지수는 금융위기전('00~'02년) -0.046에서 금융위기 이후('13~'15년) -0.040으로 소폭 하락
- 여행서비스, 보험서비스, 지적권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은 수입특화이며, '건설서비스'와 '운송서비스'는 수출특화 업종
- 컴퓨터, 정보서비스는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 개인·문화·여가서비스도 '14년 이후 수출특화로 전환*
 - * 컴퓨터와 정보는 각각 '10년, '14년 이후부터 수출특화로 전환, 연구개발, 전문·경영컨설팅, 기술·무역 등 기타사업서비스는 수입특화가 지속

□ 우리나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서 지역과 품목이 편중되는 현상 해소를 위한 수출다각화 전략이 필요

- 주력산업과 중간재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재 및 소비재의 수출전략을 재점검
- 소비재를 국내상품의 단순한 수출에서, 기획단계에서부터 타겟시장의 소비자를 고려, 문화콘텐츠, 물류 등 여타 서비스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융복합 수출전략 수립

I

조사배경

1

금융위기 전후 세계경제환경

□ 세계수출은 금융위기 전(00~08년) 연평균 6.7%를 기록하였으나, 이후(11~15년)에는 절반수준으로 둔화된 상황

○ 금융위기 이후 수출증가율의 하락은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물량보다는 주로 가격 상승세 둔화에 기인

- 금융위기 이후(11~15년) 세계수출은 연평균 3.7%를 기록,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약 1/2수준으로 축소

* 90년대는 우루과이라운드('93년 타결), EC 출범('93년), NAFTA출범('94년), WTO출범('95년) 등 글로벌 무역자유화의 흐름 속에 교역증가세가 지속

* 중국의 WTO 정식가입(2002년)과 신흥국경제의 고성장, '9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 등으로 세계교역은 확대

○ 최근 세계교역 둔화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글로벌 수요가 미약한데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수출액 탄성치가 작아진 데 기인

- 더구나 세계경제는 국제금융 시장불안, 자산가격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회복세가 약화*

* '16년 세계경제성장률은 1월 전망치대비 0.2%p 하향조정 한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IMF, '16.4월)

<그림 1> 세계 수출증가율 추이



주: 탄성치는 수출증가율/경제성장률
 자료: IMF(2016.5)

<표 1> 연도별 탄성치

| | 90~15 | 90~99 | 00~08 | 11~15 |
|-------|-------|-------|-------|-------|
| 상관관계 | 0.92 | 0.64 | 0.93 | 0.92 |
| 수출증가율 | 5.9 | 7.0 | 6.7 | 3.7 |
| 경제성장률 | 2.7 | 2.8 | 3.1 | 2.6 |
| 탄성치 | 2.2 | 2.5 | 2.2 | 1.4 |

□ 세계교역증가율 둔화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교역확대 효과 약화, 중국발 글로벌 교역둔화 리스크 확대, 세계경제 잠재성장률 하락이 주요 원인

- '90년대 생산공정별 국제분업(Production Fragmentation)을 통해 글로벌 교역확대를 견인하던 GVC 확대효과가 점차 제약
 -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산업자급률 제고노력, 선진국과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부품 등 중간재 수입이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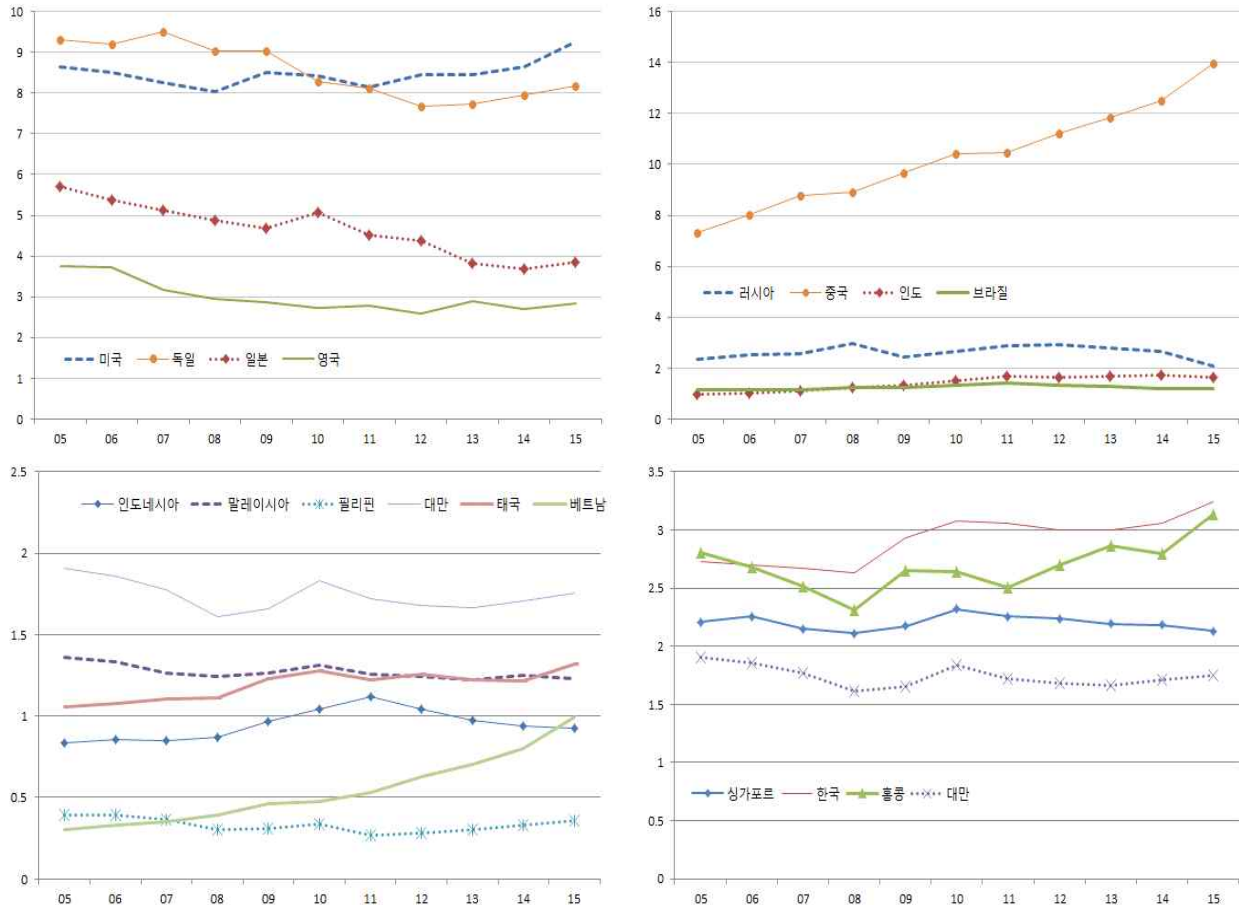
* 중국의 수입에서 중간재 차지 비중(%) : 64 ('00) → 52.1 ('10) → 49.8 ('14)
* 글로벌 교역에서 중간재 비중 추이 : [전세계] 45.9%('01~'07) → 46.9%('14)
[신흥국] 53.5%('01~'07) → 50.2%('14)

- 잠재성장률 하락*은 생산요소 투입의 감소와 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원인
 - *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장기적으로 자본투자가 일어나지 않아서 생산요소 투입 감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비중은 하락한 반면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

- 미국 시장점유율은 평균 8.4%('05~'08년)→8.6%('11~'15년)로 상승한 반면, 독일 9.3%→7.9%, 영국 3.4%→2.8%, 일본 5.3%→4.0%로 하락
 - * EU 28개국 평균도 38.3%→32.8%로 하락, 프랑스 4.1%→3.1%, 이탈리아 3.5%→2.8%
- 중국 시장점유율은 평균 8.3%→8.6%, 인도 1.1%→1.7%, 브라질 1.2%→1.3%, 러시아 2.6%→2.7%로 상승
- 아세안 주요 5개국의 시장점유율은 평균 4.0%→4.5%로 상승하였으며, 국가별로 베트남 0.3%→0.7%, 인도네시아 0.9%→1.0%, 태국 1.1%→1.2%를 기록
 - * 말레이시아 1.3%→1.2%, 필리핀 0.4%→0.3%
- 한국 시장점유율은 평균 2.7%→3.1%, 싱가포르 2.2%→2.2%, 홍콩 2.6%→2.8%, 대만 1.8%→1.7%를 기록

<그림 2> 주요국별 세계수출 시장점유율



자료: WTO(2016.5)

2 우리나라의 수출환경

- (경기적요인) 중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둔화 및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이 수출부진으로 이어지는 상황
- (경기둔화) 최대 수출시장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전세계 수요 부진
 - * 中 경제성장률(%): ('08-'11) 9.7→('12-'13) 7.7→('15.1,2Q) 7.0→(3Q) 6.9→(4Q) 6.8→('16.1Q)6.7
 - 中 정부가 2014년 5월, 고도성장기 종료,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뜻하는 뉴노멀(新常态) 진입 선언 후 중국 경제성장률은 7%를 넘지 못하는 상황

- 中 정부의 일시적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GDP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7.0%로, 경
착륙 우려 속 2~3년 내에 성장률 5%까지 둔화가 예상

○ (유가하락) 유가 급락이 관련 품목의 수출입 단가 하락을 초래

- 국제유가 하락 안정화에 따른 중동·중남미·유라시아 등 산유국 경기하락 심화
가능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내재

○ (對中 수출구조)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정책으로 對中 중간재 수출 부진

- 우리나라의 대중수출부진 고착화 소지, 유가 하락 및 원화 절상에 따른
제조업기반 약화의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발생 가능성에 유의

□ (구조적 요인) 중국 성장정책 변화, 생산네트워크 재편,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 경쟁력 저하 등은 수출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이 경제성장 축을 '수출·투자→소비'로 전환하였는바, 이는 우리
기업의 對中 소재·부품 수출확대 기회요인 감소

* 국가별 對中 가공무역 수출비중(14, %) : (한국) 51.9, (대만) 50.1, (일본) 34.2, (미국) 15.7

○ 선진국은 선진 기술을 앞세운 제조업 新르네상스, 신흥국은 제조업의 핵심
성장엔진화로 전세계가 자국내 제조기지 육성에 따른 글로벌 생산네트 재편

* (미국) '첨단제조업 육성정책(AMP)' 등으로 신기술 표준화를 주도, 해외진출 기업
들의 생산시설 유턴이 본격화되면서 美 제조업 부활을 예고

* (독일) 제조업과 정보기술 복합화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조업
부문에서 기존의 시장우위를 지속·확대하는 제조업 4.0 정책 선언

* (일본) 전략시장 창조, 글로벌 진출과 함께 일본의 산업부흥을 강조한 '新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신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

○ (GVC) 우리나라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는 활발하나, 경제성장으로의 연결
고리가 취약

- (부가가치 수출) 국내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의 비중은 58.8%(11년

기준)에 불과

* OECD 국제산업연관표('15. 6월 발표)는 '11년까지의 통계를 제공(OECD-WTO Trade in Value Added)

- 이는 소재·부품 중 핵심 분야의 해외수입 총당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기초금속, 화학, 전기전자의 경우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산업 평균에 미달

* 일례로, 플라스틱은 67.2%, 정밀기기는 32.7%의 부품을 對일본 수입에 의존

* 우리나라 산업별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기초금속 46.4% 화학 46.9%, 전기전자 58.2%

- (높은 해외 의존도) 주력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창출에서 특정국 최종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특히 총량 및 부가가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총량 34.5%, 부가가치 64.7%), 아세안의 경기둔화 및 시장 축소는 부가가치 수출이 급감하는 결과 초래

- (취약한 서비스 경쟁력) 서비스업 경쟁력 부족으로 부가가치 창출 연계 고리 약화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95년 38.6%에서 '11년 25.1%로 오히려 둔화, 선진국과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 주요국 서비스업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미국 49.6%, 일본 44.1%, 독일 41.4%, 중국 27.6%

□ (수출 단가) 우리의 수출단가증가율은 '10년 2/4분기를 기점으로 하락추세 지속

○ '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하락과 경쟁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단가 증가율 둔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

○ (유가영향 품목) 유가하락이 심화되면서 석유제품·석유화학 감소폭 확대*

* 수출단가증가율은 '14년 - 4.3%에서 '15년 - 11.2%로 하락하였으며, 원료 및 연료, 석유제품, 섬유사, 고무타이어 및 튜브, 화공품 등 유가영향으로 인한 석유제품 감소폭이 큰 상황

- 수출단가 중 가장 하락폭이 큰 부문은 석유제품으로 $\Delta 3.1\%$ ('13년)→ $\Delta 4.1\%$ ('14년)→ $\Delta 28.1\%$ ('15년)→ $\Delta 33.6\%$ ('16년)으로 하락

<그림 3> 수출단가 추이(단위: %)



주: '16년은 4월까지 수치이며, 이하 상동

자료: 관세무역개발원(2016.6)

<표 2> 업종별 수출단가 추이(단위: %)

| 품목명 | 2000 | 2002 | 2004 | 2006 | 2010 | 2014 | 2015 | 2016 |
|------------|-------|-------|------|-------|------|-------|-------|-------|
| 수출단가지수 | -5.8 | -4.4 | 7.6 | 0.7 | 11.9 | -4.3 | -11.2 | -10.4 |
| 식료 및 직접소비재 | 27.7 | -3.9 | 7.4 | 8.9 | 10.5 | -6.7 | -9.1 | -2.5 |
| 어패류 및 조제품 | 24.5 | -7.7 | 10.3 | 3.5 | 25.8 | -18.1 | -15.1 | 3.5 |
| 원료 및 연료 | 261.2 | -3.4 | 30.8 | 20.8 | 29.5 | -4.5 | -26.9 | -31.4 |
| 석유제품 | 346.2 | 6.2 | 34.1 | 21.2 | 29.6 | -4.1 | -28.1 | -33.6 |
| 경공업품 | 30.8 | -1.7 | 4.7 | 5.6 | 7.9 | -4.5 | -6.5 | -3.6 |
| 섬유사 | 24.0 | -6.4 | 5.5 | 4.5 | 16.2 | -2.6 | -9.9 | -5.7 |
| 직물 | 17.9 | -2.9 | 2.8 | 3.5 | 4.3 | -3.1 | -3.8 | -0.9 |
| 의류 | -12.5 | -2.3 | 1.5 | 1.4 | -6.3 | -8.0 | -7.4 | 0.3 |
| 고무타이어 및 튜브 | 66.5 | 2.6 | 10.4 | 3.9 | 9.1 | -2.8 | -8.0 | -2.4 |
| 금 | 272.8 | 12.4 | 10.6 | 26.8 | 20.5 | -10.9 | -6.9 | -2.3 |
| 종이류 | 2.9 | -16.1 | 4.5 | 3.6 | 14.7 | -4.3 | -8.2 | -2.4 |
| 중화학공업품 | -21.8 | -5.1 | 6.7 | -1.8 | 9.3 | -4.2 | -8.3 | -6.7 |
| 화공품 | 90.0 | 0.1 | 28.0 | 8.0 | 15.5 | -6.0 | -17.7 | -11.3 |
| 철강제품 | 85.4 | -0.7 | 25.3 | 6.5 | 10.3 | 1.3 | -14.3 | -11.8 |
| 기계류와 정밀기기 | -13.5 | -5.5 | 1.4 | 1.1 | -1.6 | -8.5 | -6.4 | -9.2 |
| 정밀기기 | -59.6 | -10.4 | 6.8 | -11.4 | -6.2 | -10.2 | -14.4 | -1.3 |
| 전기·전자제품 | -66.5 | -12.2 | 1.6 | -9.3 | 11.2 | -7.3 | -3.8 | -2.5 |
| 가전제품 | -29.3 | -1.2 | -2.7 | -3.1 | 8.2 | -4.1 | -3.3 | -2.2 |
| 정보통신기기 | -31.4 | -7.8 | 1.1 | -0.9 | -0.5 | 2.7 | -11.4 | 1.3 |
| 반도체 | -93.6 | -18.6 | 7.8 | -20.1 | 22.3 | -8.7 | -8.3 | 2.0 |
| 승용자동차 | 36.2 | 3.2 | 2.6 | 4.5 | 3.3 | 0.6 | -1.7 | -0.4 |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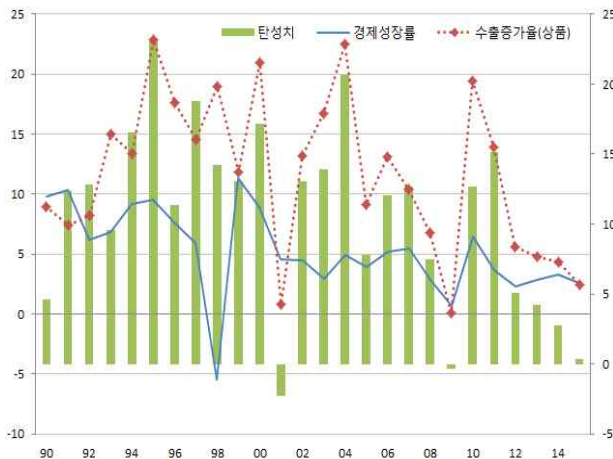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의 수출패턴 분석

1

상품수출구조 변화

- 우리수출은 금융위기 전(00~08년) 연평균 12.6%를 기록하였으나, 이후(11~15년)에는 6.2%로 하락
 - 동기간 중 경제성장률이 4.8%→3.0%로 하였으나, 수출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여, 경제성장률에 대한 수출 탄성치도 2.6→2.1로 하락
 - 이러한 수출 탄성치의 하락은 경제성장률과 수출의 연결고리 약화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단순한 경제성장만으로는 수출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
 - 결국,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단순히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출에서도 질적 발전을 위한 체질개선이 필요함을 의미

<그림 4> 우리나라 수출증가율 추이



주: 탄성치는 수출증가율/경제성장률
 자료: IMF(2016.5)

<표 3> 연도별 탄성치

| | 90~15 | 90~99 | 00~08 | 11~15 |
|-------|-------|-------|-------|-------|
| 상관관계 | 0.23 | -0.37 | 0.45 | 0.69 |
| 수출증가율 | 11.7 | 13.9 | 12.6 | 6.2 |
| 경제성장률 | 5.2 | 7.1 | 4.8 | 3.0 |
| 탄성치 | 2.2 | 1.9 | 2.6 | 2.1 |

-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의 대세계수출은 중국, 베트남 등 신흥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우리의 국별 수출은 미국 '04년(16.9%)→'15년(13.3%), 독일(3.3%→1.2%), 영국(2.2%→1.4%), 캐나다(1.4%→0.9%) 등 주요 선진국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중국(19.6%→26.0%)과 베트남

(1.3%~5.3%)은 증가세

- 특히 신흥국에서도 중국(15년 기준 26.0%), 아세안(14.2%)에 편중되어 있어 중동(5.8%), 중남미(5.8%), CIS(1.3%), 아프리카(2.0%)에 대한 수출시장 다양화 전략수립이 필요

<표 4>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 국가 | 2003년 | 2004년 | 2009년 | 2010년 | 2014년 | 2015년 |
|----|-------|------------------|------------------|------------------|-------------------|-------------------|-------------------|
| | 총계 | 193,817 | 253,845 | 363,534 | 466,384 | 572,665 | 526,757 |
| 1 | 중국 | 35,110 (18.1) | 49,763 (19.6) | 86,703 (23.9) | 116,838 (25.1) | 145,288 (25.4) | 137,124 (26.0) |
| 2 | 미국 | 34,219 (17.7) | 42,849 (16.9) | 37,650 (10.4) | 49,816 (10.7) | 70,285 (12.3) | 69,832 (13.3) |
| 3 | 홍콩 | 14,654 (7.6) | 18,127 (7.1) | 19,661 (5.4) | 25,294 (5.4) | 27,256 (4.8) | 30,418 (5.8) |
| 4 | 베트남 | 2,561 (1.3) | 3,256 (1.3) | 7,149 (2.0) | 9,652 (2.1) | 22,352 (3.9) | 27,771 (5.3) |
| 5 | 일본 | 17,276 (8.9) | 21,701 (8.5) | 21,771 (6.0) | 28,176 (6.0) | 32,184 (5.6) | 25,577 (4.9) |
| 6 | 싱가포르 | 4,636 (2.4) | 5,654 (2.2) | 13,617 (3.7) | 15,244 (3.3) | 23,750 (4.1) | 15,011 (2.8) |
| 7 | 인도 | 2,853 (1.5) | 3,632 (1.4) | 8,013 (2.2) | 11,435 (2.5) | 12,782 (2.2) | 12,030 (2.3) |
| 8 | 대만 | 7,045 (3.6) | 9,844 (3.9) | 9,501 (2.6) | 14,830 (3.2) | 15,077 (2.6) | 12,004 (2.3) |
| 9 | 멕시코 | 2,455 (1.3) | 2,994 (1.2) | 7,133 (2.0) | 8,846 (1.9) | 10,846 (1.9) | 10,892 (2.1) |
| 10 | 호주 | 3,272 (1.7) | 3,378 (1.3) | 5,243 (1.4) | 6,642 (1.4) | 10,283 (1.8) | 10,831 (1.6) |
| 13 | 인도네시아 | 3,378 (1.7) | 3,678 (1.4) | 6,000 (1.7) | 8,897 (1.9) | 11,361 (2.0) | 7,872 (1.5) |
| 14 | 말레이시아 | 3,852 (2.0) | 4,480 (2.0) | 4,325 (1.2) | 6,115 (1.3) | 7,583 (1.3) | 7,735 (1.5) |
| 16 | 영국 | 4,094 (2.1) | 5,516 (2.2) | 3,797 (1.0) | 5,555 (1.2) | 5,783 (1.0) | 7,390 (1.4) |
| 19 | 독일 | 5,603 (2.9) | 8,334 (3.3) | 8,821 (2.4) | 10,702 (2.3) | 7,571 (1.3) | 6,220 (1.2) |

주: () 안은 비중이며, 순위는 2015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016.5)

- 금융위기전후 우리의 주요수출국 순위의 특징은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 부상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등 선진국 순위 하락으로 요약
 - 베트남은 15위('03년)→9위('10년)→6위('14년)→4위('15년)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인도도 13위('13년)→7위('15년)로 상승
 - 중국, 미국, 홍콩은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며, 일본은 '15년에는 3위에서 5위로 순위가 하락

<표 5>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순위 변동

(단위: 순위)

| | 2003년 | 2004년 | 2009년 | 2010년 | 2014년 | 2015년 |
|----|-------|-------|-------|-------|-------|-------|
| 1 | 중국 | 중국 | 중국 | 중국 | 중국 | 중국 |
| 2 | 미국 | 미국 | 미국 | 미국 | 미국 | 미국 |
| 3 | 일본 | 일본 | 일본 | 일본 | 일본 | 홍콩 |
| 4 | 홍콩 | 홍콩 | 홍콩 | 홍콩 | 홍콩 | 베트남 |
| 5 | 대만 | 대만 | 싱가포르 | 싱가포르 | 싱가포르 | 일본 |
| 6 | 독일 | 독일 | 마셜제도 | 대만 | 베트남 | 싱가포르 |
| 7 | 싱가포르 | 싱가포르 | 대만 | 인도 | 대만 | 인도 |
| 8 | 영국 | 영국 | 독일 | 독일 | 인도 | 대만 |
| 9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 인도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멕시코 |
| 10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멕시코 | 호주 |
| 11 | 호주 | 인도 | 멕시코 | 멕시코 | 호주 | 사우디 |
| 12 | 필리핀 | 이탈리아 | 인도네시아 | 러시아 | 러시아 | 필리핀 |
| 13 | 인도 | 캐나다 | 브라질 | 브라질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 14 | 캐나다 | 필리핀 | 호주 | 호주 | 브라질 | 말레이시아 |
| 15 | 베트남 | 호주 | UAE | 태국 | 사우디 | 마셜제도 |
| 16 | 이탈리아 | 베트남 | 라이베리아 | 말레이시아 | 마셜제도 | 영국 |
| 17 | 네덜란드 | 태국 | 필리핀 | 필리핀 | 태국 | 태국 |
| 18 | 태국 | 네덜란드 | 태국 | 영국 | 말레이시아 | 터키 |
| 19 | 멕시코 | 멕시코 | 네덜란드 | UAE | 독일 | 독일 |
| 20 | UAE | 스페인 | 파나마 | 라이베리아 | UAE | UAE |

자료: 한국무역협회(2016.5)

- (수출품목 집중) 수출 주력품목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수출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의 위험 분산효과가 결여
 - 우리나라 수출은 '80년대까지는 의류, 신발 등 경공업제품이 주종이었으

나, '90년대 이후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IT제품, 선박이 주요 수출품목

○ 주요국과 비교해 수출 주력품목이 적어 수출품목의 다양성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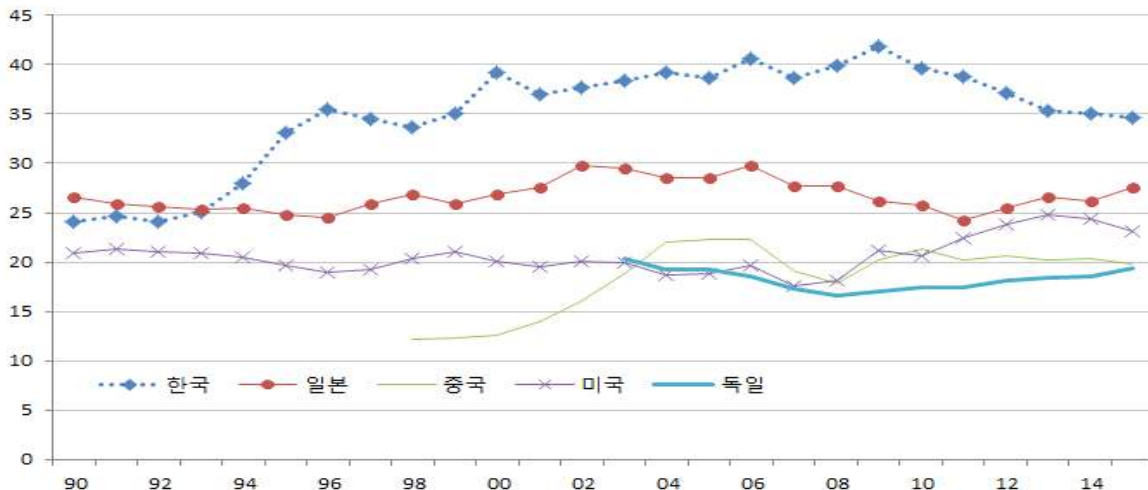
- '15년 우리의 수출상위 10대 품목의존도*(10대품목 수출액합계/총수출액)는 **34.6%**로, 미국(23.1%), 일본(27.6%), 독일(19.4%), 중국(19.8%)에 비해 높은 수준

* HS 6단위 기준

- 더구나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 등으로 IT, 자동차, 석유제품을 주로 수출

○ 소수 수출 주력상품의 비중과 수출 집중도 지수가 높음에 따라 경기위축 리스크 분산효과 미약

<그림 5> 수출상위 10대 품목의존도



주: HS 6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016.5)

○ 우리나라의 허쉬만·허핀달지수*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아, 수출의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허쉬만 허핀달 지수¹⁾(Hirschman Herfindahl Index: HHI)는 산업집중도 측정방법의 하나로 당해산업의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을 합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전체

1)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 $\sum_{i=1}^N (\frac{x_i}{X})^2$, x_i 는 상품 i의 수출액, X 는 전체수출액으로 HHI수치가 높을수록 전체수출이 소수의 수출품목으로 집중되어 있어, 수출품목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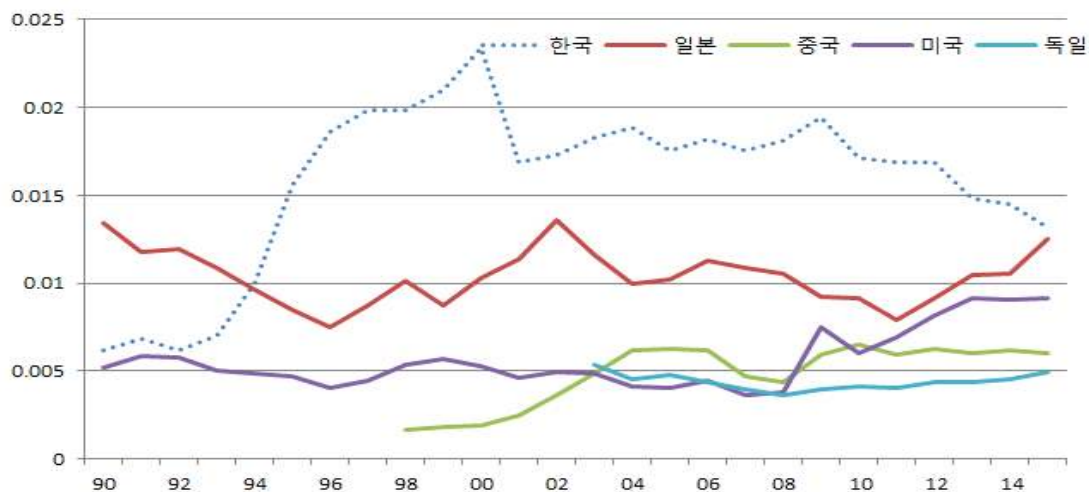
수출액 대비 수출품목의 비중을 이용해 수출품목의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활용

- '15년 우리나라의 허쉬만·허핀달지수는 0.013으로 감소는 하고 있으나, 미국 0.009, 중국 0.006, 독일 0.005에 비해 아직은 높은 수준*

○ 주력 수출품목의 집중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리스크 충격에 취약

- 소수 수출품의 의존도가 높아 품목 다양성이 결여될 경우, 세계 경기 위축이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확률이 증대

<그림 6> 주요국의 허쉬만·허핀달 지수 추이



주: HS 6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0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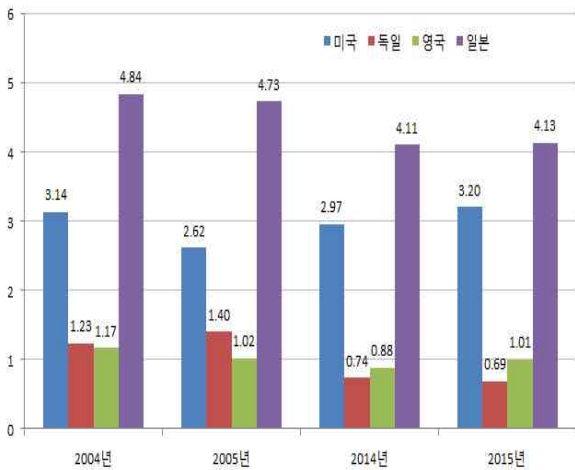
□ 선진국 시장보다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 편중현상이 지속

- 우리수출의 약 60%를 신흥국*이 차지하고 있어 선진시장의 비중이 낮음
- * '15년 지역별 수출 비중: 신흥국(58.8%), 미국(13.3%), 유럽(9.1%), 일본(4.9%), 대양주(3.6%)
- 주요 선진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점유율 하락세가 지속
- * 선진국에서 한국 시장점유율 변화(% , '04년→'15년) : 미국(3.14 → 3.20), 독일(1.33 → 0.69), 영국(1.18 → 1.01), 일본(4.84 → 4.13)
- 우리나라의 대세계수출에서도 중국, 베트남 등 신흥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상황
- 우리의 국별 수출은 미국 '04년(16.9%)→'15년(13.3%), 독일(3.3%→1.2%), 영국(22%→

1.4%), 캐나다(1.4%→0.9%) 등 주요 선진국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증가세

- 특히 신흥국에서도 중국(26.0%), 아세안(14.2%)에 편중되어 있어 중동(5.8%), 중남미(5.8%), CIS(1.3%), 아프리카(2.0%)에 대한 수출시장 다양화 전략수립이 필요

<그림 7> 우리나라의 주요 선진국 시장점유율(%)



<표 6>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수출비중(%)

| 국가 | 2004년 | 2010년 | 2015년 |
|-------|-------|-------|-------|
| 중국 | 19.6 | 16.8 | 26.0 |
| 미국 | 16.9 | 9.5 | 13.3 |
| 일본 | 8.5 | 15.1 | 4.9 |
| 홍콩 | 7.1 | 0.5 | 5.8 |
| 대만 | 3.9 | 3.2 | 2.3 |
| 독일 | 3.3 | 3.4 | 1.2 |
| 싱가포르 | 2.2 | 1.8 | 2.8 |
| 영국 | 2.2 | 0.8 | 1.4 |
| 말레이시아 | 1.8 | 2.2 | 1.5 |
| 인도네시아 | 1.4 | 3.3 | 1.5 |
| 인도 | 1.4 | 1.3 | 2.3 |
| 필리핀 | 1.3 | 0.8 | 1.6 |
| 호주 | 1.3 | 4.8 | 2.1 |
| 베트남 | 1.3 | 0.8 | 5.3 |
| 태국 | 1.3 | 1.0 | 1.2 |

자료: 한국무역협회(2016.5)

2 서비스 수출구조 변화

- 주요 선진국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소득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서비스의 중간재화 등이 서비스 수요 측면의 주요 변화
 - 선진국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주요 이유는 서비스업의 중간재로서의 역할이 증가하기 때문
 - 서비스는 그 자체가 최종적인 소비재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최종재의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서의 역할을 수행

-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고 노동집약적이므로,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제조업과의 선순환 구조와 경제성장 가능

□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규모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

- OECD 국가 내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은 12위로, 상품수출 4위보다 크게 낮고 주요 수출국 중에서도 순위 간 격차도 가장 큰 상황

<표 7>OECD 국가의 최근 5년 평균('11~'15년) 상품 및 서비스수출 순위

| 순위 | 상품수출(십억달러) | | 서비스수출(십억달러) | |
|----|------------|---------|-------------|-------|
| | 국가 | 수출액 | 국가 | 수출액 |
| 1 | 미국 | 1,560.0 | 미국 | 678.6 |
| 2 | 독일 | 1,406.1 | 영국 | 331.7 |
| 3 | 일본 | 707.3 | 독일 | 266.2 |
| 4 | 한국 | 594.2 | 프랑스 | 248.8 |
| 5 | 프랑스 | 565.2 | 일본 | 145.1 |
| 6 | 네덜란드 | 544.2 | 네덜란드 | 143.2 |
| 7 | 이탈리아 | 492.5 | 스페인 | 126.1 |
| 8 | 영국 | 475.0 | 아일랜드 | 119.4 |
| 9 | 캐나다 | 455.7 | 스위스 | 111.9 |
| 10 | 프랑스 | 336.7 | 벨기에 | 111.9 |
| 11 | 벨기에 | 303.9 | 이탈리아 | 108.7 |
| 12 | 스페인 | 299.0 | 한국 | 101.6 |
| 13 | 호주 | 242.6 | 룩셈부르크 | 86.2 |
| 14 | 폴란드 | 193.0 | 캐나다 | 85.8 |
| 15 | 스웨덴 | 178.8 | 스웨덴 | 70.3 |
| 16 | 오스트리아 | 160.7 | 덴마크 | 68.0 |
| 17 | 터키 | 157.4 | 오스트리아 | 61.5 |
| 18 | 아일랜드 | 143.4 | 호주 | 52.8 |
| 19 | 노르웨이 | 140.4 | 터키 | 46.2 |
| 20 | 체코 | 137.4 | 노르웨이 | 4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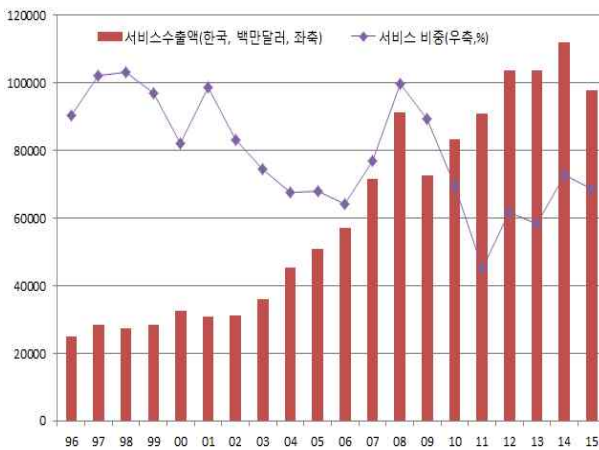
자료: OECD(2016.5)

□ 주요 선진국에서 서비스 수출은 지속적으로 상승, 수출확대의 중요한 원동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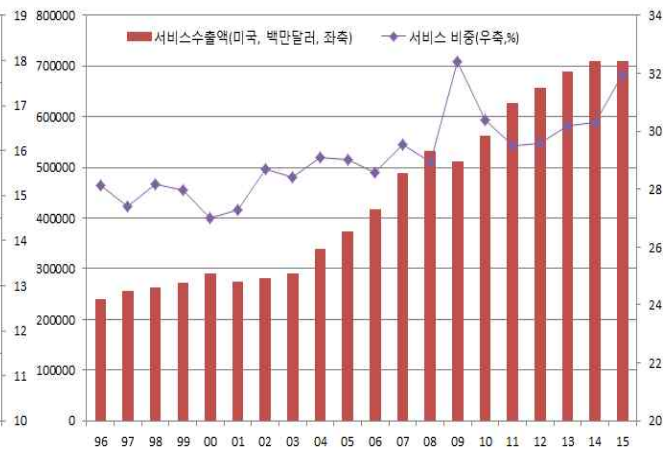
역할을 수행

- 금융위기전('00~'08년) 총수출에서 서비스 비중은 미국 28.5%→이후('11~'15년) 30.3%, 일본 14.4%→15.9%, 독일 14.4%→15.9%로 상승
- 반면 우리나라는 총수출에서 서비스 비중이 금융위기전('00~'08년) 평균 16.0%에서 이후('11~'15년) 14.0%로 하락

<그림 8> 한국 서비스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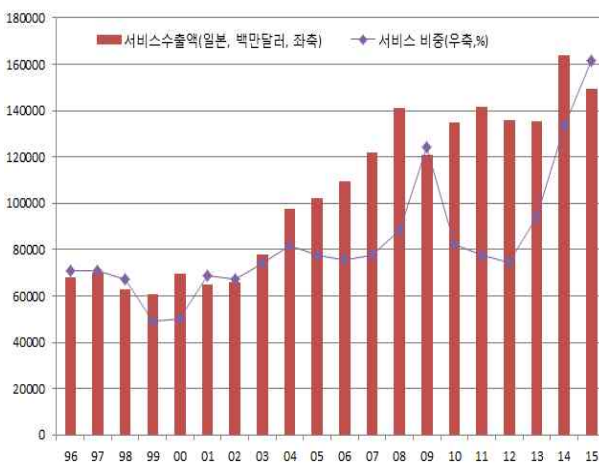


<그림 9> 미국 서비스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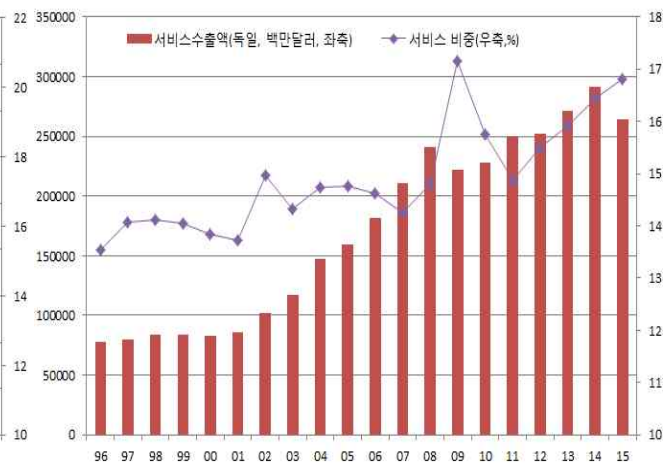


자료: OECD(2016.5)

<그림 10> 일본 서비스수출



<그림 11> 독일 서비스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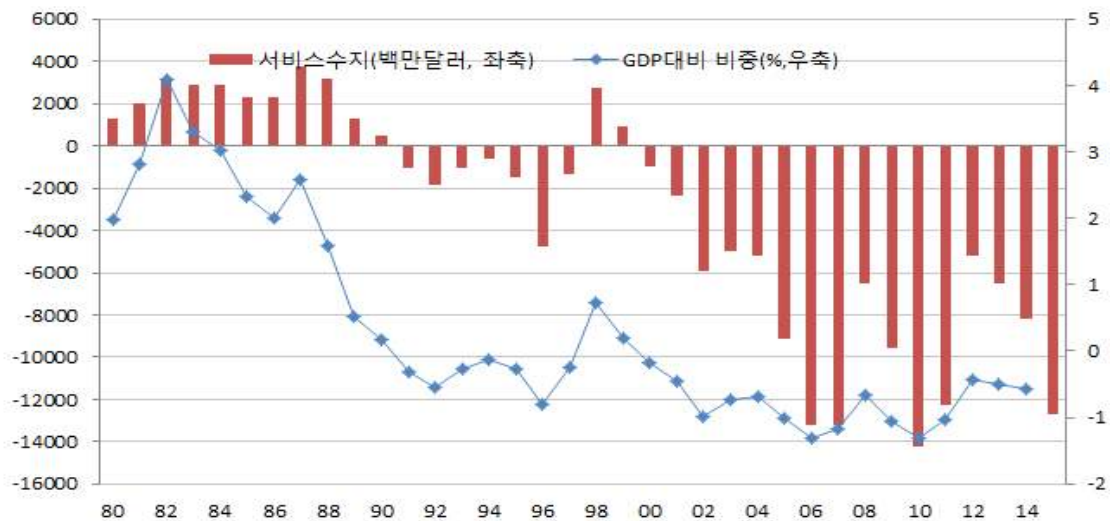


자료: OECD(2016.5)

□ (서비스수지) '00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였던 서비스 수지는 '15년 들어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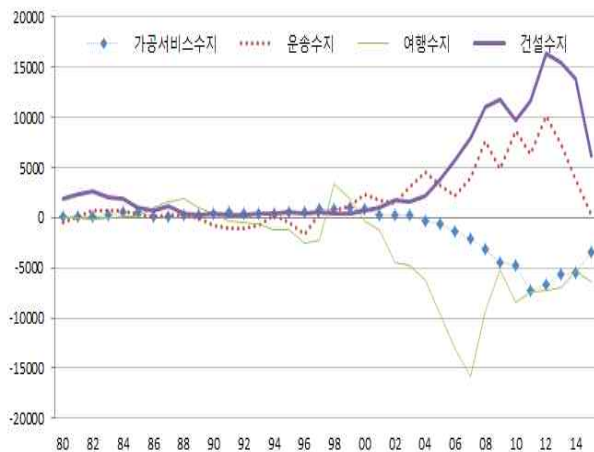
- 주요 흑자업종이었던 운송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의 흑자폭이 각각 해상물동량 감소 및 해외건설 매출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비 29.4억 달러, 32.4억 달러 축소
- 반면 주요 적자업종이었던 여행서비스는 외래 관광객 증가에 다른 여행수출 증가에 따라 수지가 개선되었으며, 기타사업서비스도 적자가 지속

<그림 12>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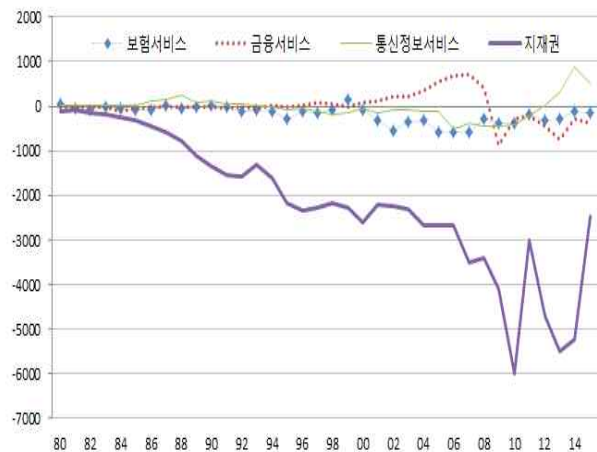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그림 13>서비스수지 추이(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그림 14>서비스수지 추이(2)



□ (권역별·국가별) 경상수지를 권역별·국가별로 보면, 미국, 중국, 동남아,

중남미와는 지속적인 흑자구조인 반면, 일본, EU, 중동과는 적자구조(15년)

- 상품 및 서비스 모두 흑자인 국가는 중국, 동남아, 중남미이며, 모두 적자인 국가는 일본, 상품무역만이 흑자인 국가는 미국, EU로 분류
-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는 지재권,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미국, EU 등 선진국에게 적자구조가 고착화

<표 8> 우리나라의 지역별 경상수지

(억 달러)

| 상대지역 | 항 목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전 체 | 경 상 수 지 | 186.6 | 508.4 | 811.5 | 843.7 | 1,058.7 |
| | 상 품 수 지 | 290.9 | 494.1 | 827.8 | 888.7 | 1,202.9 |
| | 서 비 스 수 지 | -122.8 | -52.1 | -65.0 | -36.8 | -157.1 |
| 미 국 | 경 상 수 지 | 197.7 | 190.4 | 362.3 | 409.9 | 338.5 |
| | 상 품 수 지 | 243.1 | 256.1 | 404.3 | 471.8 | 456.2 |
| | 서 비 스 수 지 | -109.7 | -124.6 | -111.0 | -110.0 | -143.8 |
| 중 국 | 경 상 수 지 | 274.3 | 415.3 | 566.9 | 560.6 | 451.4 |
| | 상 품 수 지 | 254.3 | 369.9 | 476.1 | 430.4 | 343.3 |
| | 서 비 스 수 지 | -8.2 | 12.3 | 53.4 | 78.7 | 53.4 |
| 일 본 | 경 상 수 지 | -235.7 | -194.1 | -230.6 | -161.6 | -196.8 |
| | 상 품 수 지 | -237.0 | -205.3 | -210.9 | -144.8 | -156.1 |
| | 서 비 스 수 지 | 24.4 | 36.3 | 0.5 | 12.9 | -8.9 |
| E U | 경 상 수 지 | 36.9 | 16.3 | -47.6 | -130.9 | -88.4 |
| | 상 품 수 지 | 178.5 | 127.3 | 89.7 | 18.7 | 37.7 |
| | 서 비 스 수 지 | -96.5 | -95.9 | -99.6 | -100.0 | -95.5 |
| 동 남 아 | 경 상 수 지 | 523.6 | 647.5 | 738.5 | 735.0 | 621.0 |
| | 상 품 수 지 | 525.4 | 614.1 | 722.2 | 725.0 | 599.5 |
| | 서 비 스 수 지 | -0.5 | 18.0 | 10.7 | 14.1 | 6.7 |
| 중 동 | 경 상 수 지 | -794.3 | -811.2 | -902.3 | -799.4 | -343.7 |
| | 상 품 수 지 | -834.6 | -885.4 | -941.4 | -835.3 | -363.0 |
| | 서 비 스 수 지 | 39.0 | 73.7 | 41.9 | 47.1 | 29.9 |
| 중 남 미 | 경 상 수 지 | 177.6 | 175.5 | 170.8 | 183.3 | 148.6 |
| | 상 품 수 지 | 155.6 | 148.9 | 133.4 | 154.6 | 128.0 |
| | 서 비 스 수 지 | 26.5 | 25.0 | 24.9 | 20.4 | 12.3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III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분석

1

상품 수출경쟁력

가. 무역특화지수²⁾

□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³⁾를 이용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분석⁴⁾

- 이 지수가 0인 경우 비교우위는 중간정도이며, 1이면 완전수출특화, -1이면, 완전수입특화 상태
- 이 지수는 국제경쟁력지수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0이상 1이하이면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을 뜻함.
- 반면 -1에 가까울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 금융위기 전후 무역특화지수 절대치 측면에서는 기계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지수가 0이하로 수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

2) 국제경쟁력의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1인당 GDP, 생산성, 시장점유율, 무역수지, 한 국가의 제조업생산액이 전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나 제조업 생산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역특화지수(TSI), 수출편향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됨(김희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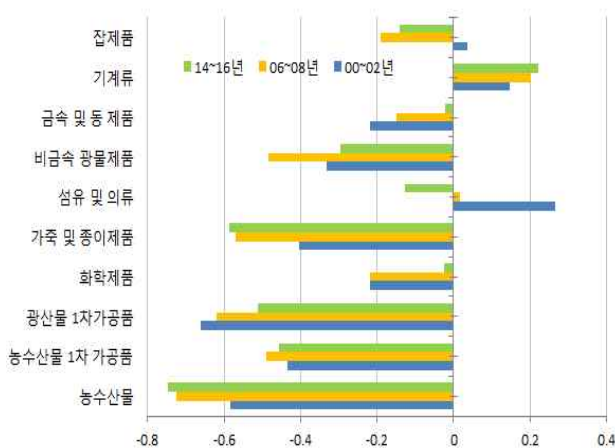
3)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 업종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의 차이를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의 합(즉, 무역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지 또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TSI_{ij} = \frac{X_i - M_i}{X_i + M_i} = \frac{i\text{업종의 총수출액} - i\text{업종의 총수입액}}{i\text{업종의 총수출액} + i\text{업종의 총수입액}}, \quad (X = \text{수출}, M = \text{수입}, i = \text{업종})$$

4) 무역특화지수는 수출과 수입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무역장벽이 있거나 수요 조건의 차이로 수입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수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높거나 낮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음. 또한 무역수지 균형을 기본전제로 도출된 지표이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한 심한 경우 전반적으로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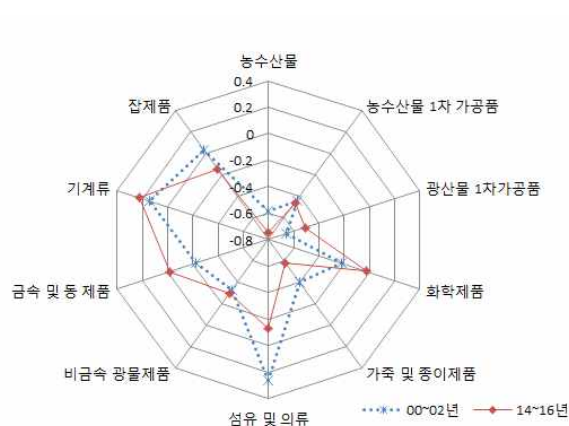
- 이를 금융위기 이전(00~02년)과 이후5)(“14~16년)를 비교해보면, 기계류, 금속 및 동제품, 화학제품 등의 수출경쟁력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
 - * 기계류(0.147→0.221), 금속 및 동제품(-0.219→-0.021), 화학제품(-0.218→-0.026)
- 반면, 섬유 및 의류와 잡제품은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되었으며,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1차산물은 수입특화가 강화된 것으로 파악

<그림 15>대세계 무역특화지수 추이



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재가공(이하 동일)

<그림 16>금융위기 전후 무역특화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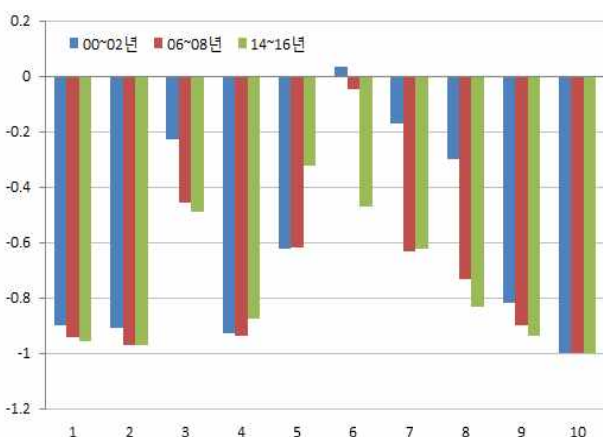


- HS코드를 세분화하면, 수출경쟁력은 동일군이라고 하더라도 세부품목에 따라 다른 것으로 평가
 - 농수산물 1차 산물에서 담배(HS코드: 24)는 00~02년에는 -0.394로 수출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0.321(“06~08년)→0.401(“14~16년)으로 증가
 - 화학제품에서 유기화학품(HS코드: 29), 정유, 조제향료, 화장품류(HS 코드 33), 플라스틱(HS코드: 39), 고무와 그 제품(HS코드: 40)에서 경쟁력이 나타남.
 - 가죽 및 종이제품에서는 지와 판지(HS코드: 48)가, 섬유 및 의류는 인조장 섬유(HS코드: 54), 인조단 섬유(HS코드: 55), 특수직물(HS코드: 58), 방직용 섬유직물(HS코드: 59), 메리야스 편물(HS코드: 60)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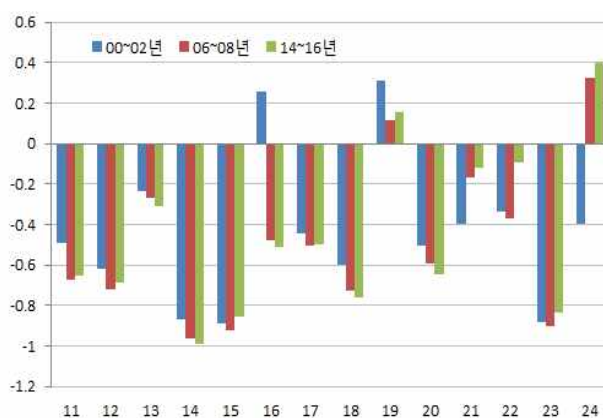
5) 2016년은 1~3월 실적을 기준

- 금속 및 동제품은 아연과 그 제품(HS코드: 79), 비금속제의 공구 등(HS코드: 82), 비금속제의 각종제품(HS코드: 83) 등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계류에서는 원자로(HS코드: 84), 전기기기(HS코드: 85), 철도용 기관차량(HS코드: 86), 승용차(HS코드: 87), 선박(HS코드: 89), 광학기기(HS코드: 90) 등 대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면 항공기(HS코드: 88), 시계(HS코드: 91)는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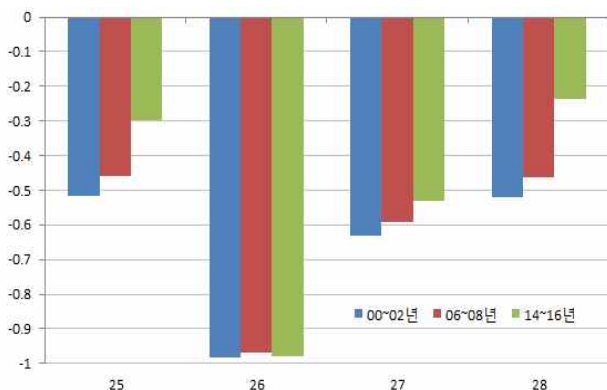
<그림 17>농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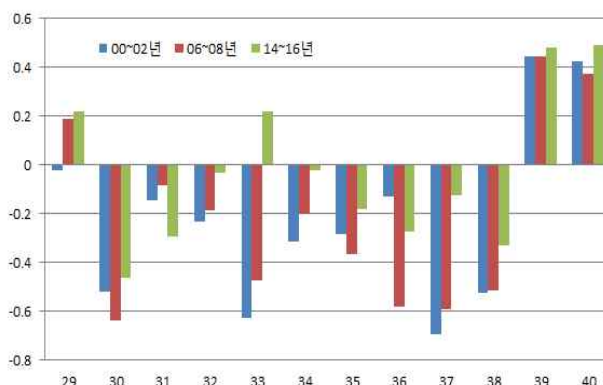
<그림 18>농수산물 1차가공품



<그림 19>광산물 1차가공품



<그림 20>화학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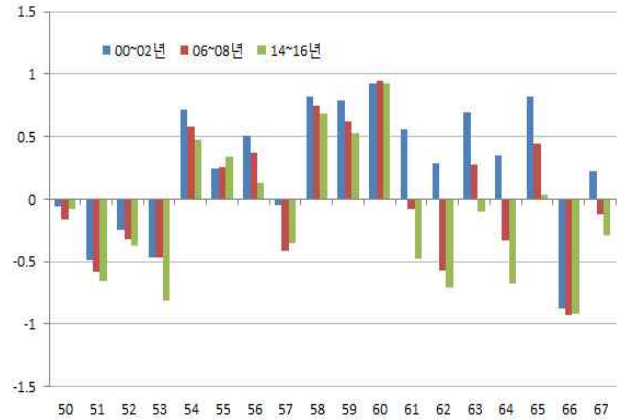


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재가공하였으며, HS코드명은 <부록 3> 참조

<그림 21>가죽 및 종이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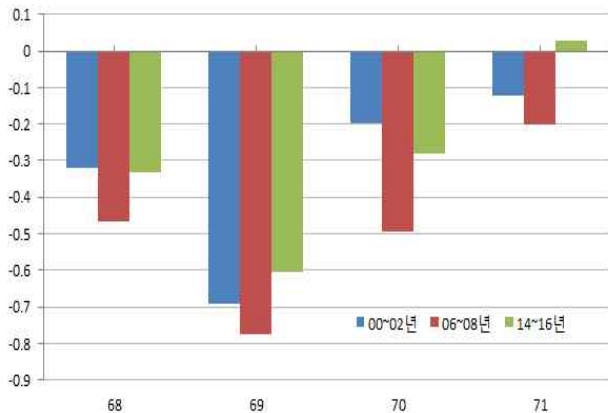


<그림 22>섬유 및 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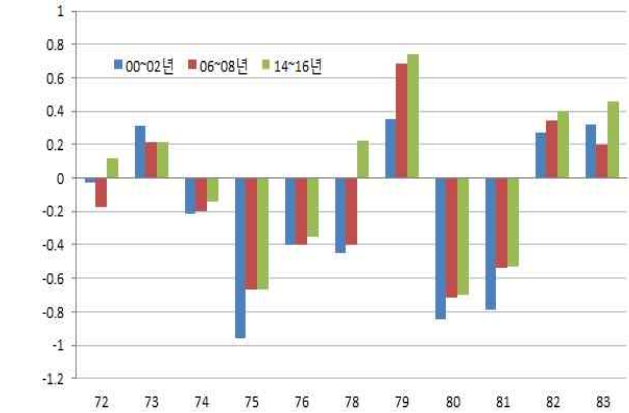


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재가공

<그림 23>비금속 광물제품



<그림 24>금속 및 동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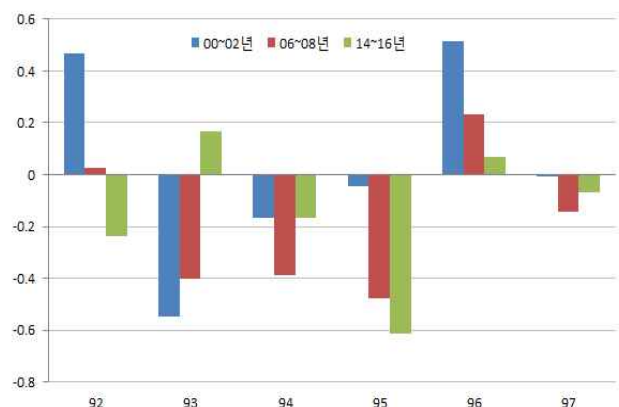


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재가공

<그림 25>기계류



<그림 26>잡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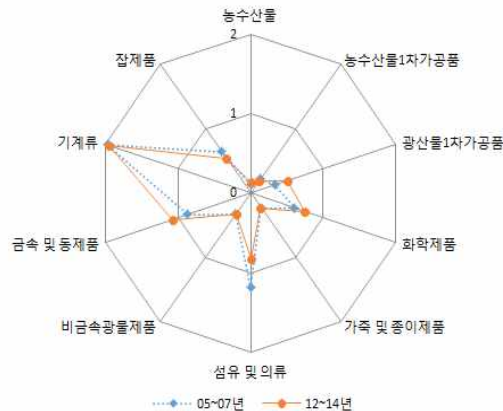


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재가공

나. 현시비교지수⁶⁾

- 금융위기전후 기계류(HS 코드: 84~91)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1이하로 비교열위 품목으로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조사
 - 금융위기전후 광산물 1차가공품(0.33→0.50), 화학제품(0.60→0.74), 금속 및 동제품(0.86→1.07)으로 개선된 품목으로 집계
 - 농수산물 1차가공품(0.22→0.19), 섬유 및 의류(1.19→0.83), 잡제품(0.64→0.54)등은 현시비교우위지수가 하락한 품목으로 분류

<그림 27> 금융위기 전후 현시비교우위지수 변화



주: Uncomtrade(2016.6)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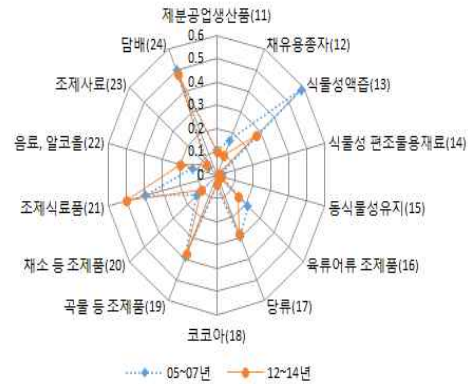
-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1차가공품은 모두 1이하로 국제경쟁력이 열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 다만 기타동물성생산물(HS코드: 05)는 금융위기전후 0.21→0.66, 조제식료품(21)은 0.40→0.50으로 경쟁력이 상승

6)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높으며, $0.1 < RCA < 1$ 이하면 경우는 중간 정도, $RCA < 0.1$ 이하면 경우는 비교우위가 낮은 것으로 해석 가능함. 국제시장 점유율 등에 의해 경쟁력을 비교하는 경우 절대적인 수치이므로,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들 간에는 적절치 않은데 반해, 현시비교우위지수는 국가별 시장점유율과 상품별 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대적인 수치이므로 경제규모가 서로 다른 국가들에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존재함.

<그림 28>농수산물



<그림 29>농수산물 1차가공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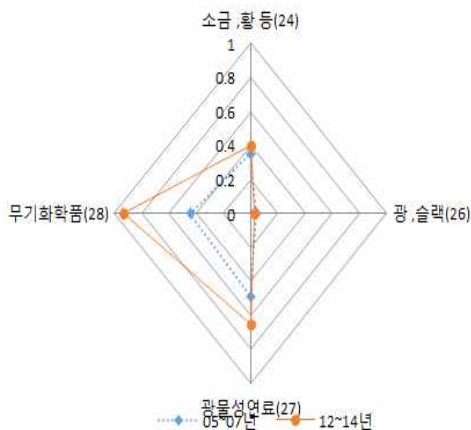


자료: Uncomtrade(20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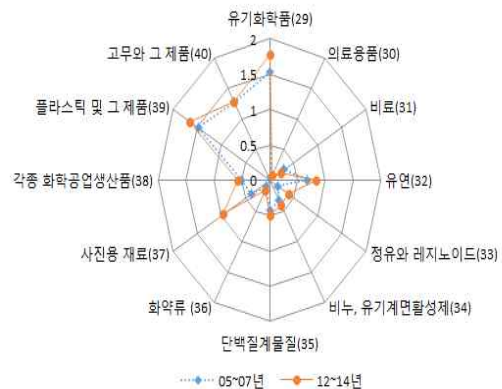
□ 금융위기 전후 광산물 1차가공품과 화학제품은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광산물 1차가공품에서 소금, 황 등(HS코드: 25)은 0.35→0.40, 광물성연료(27)는 0.49→0.65, 무기화학품(28)은 0.44→0.93으로 증가
- 화학제품에서 유기화학품(29)은 1.53→1.78, 유연(32)은 0.68→0.84, 정유와 레지노이드(33)는 0.17→0.40, 비누(34)는 0.34→0.41, 사진용 재료(37)는 0.39→0.96, 플라스틱 및 그 제품(39)은 1.48→1.66으로 증가

<그림 30>광산물 1차가공품



<그림 31>화학제품



주: Uncomtrade(2016.6)

□ 가죽 및 종이제품은 금융위기전후에도 비슷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섬유 및 의류는 품목에 따라 경쟁력이 상이

○ 가죽 및 종이제품은 대부분 경쟁력이 미미한 수준이며, 원피와 가죽(41)은 1.08→0.93로 경쟁력이 하락, 지와 판지(0.55)는 0.55→0.55로 동일한 수준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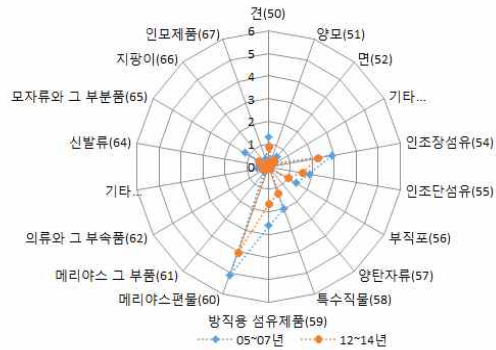
○ 섬유와 의류에서 1이상의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은 인조장섬유(54), 인조단섬유(55), 부직포(56), 특수직물(58), 메리야스편물(60), 로 분류*

* 인조장섬유(54)는 2.91→2.24, 인조단섬유(55)는 1.86→1.54, 부직포(56)는 1.45→1.00, 특수직물(58)은 2.00→1.24, 메리야스편물(60)은 5.09→4.01

<그림 32>가죽 및 종이제품



<그림 33>섬유 및 의류



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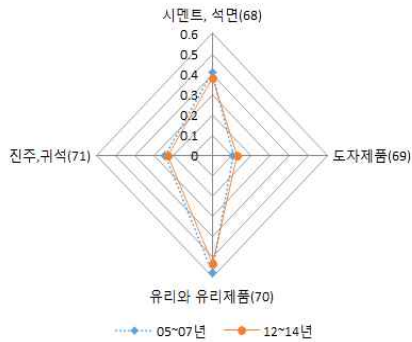
□ 비금속 광물은 전반적으로 비교열위이면서 경쟁력이 약화, 금속 및 동제품은 철강(72, 73)과 아연과 그 제품(79), 비금속제(82, 83)는 경쟁력이 강화

○ 비금속광물제품에서 시멘트, 석면(38)은 0.41→0.38, 도자제품(69)은 0.11→0.13, 유리와 유리제품(70)은 0.58→0.53, 진주, 귀석(71)은 0.25→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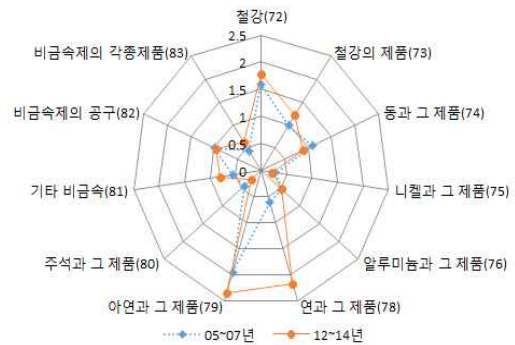
○ 금속 및 동제품에서 철강(72)은 1.59→1.79, 철강의 제품(73)은 0.99→1.21, 연과 그 제품(78)은 0.60→2.17, 아연과 그 제품(79)은 1.96→2.34으로 상승

- 반면 동과 그 제품(74)은 1.10→0.89, 니켈과 그 제품(75)은 0.28→0.21, 알루미늄과 그 제품(76)은 0.54→0.52, 주석과 그 제품(80)은 0.43→0.26으로 하락

<그림 34>비금속 광물제품



<그림 35>금속 및 동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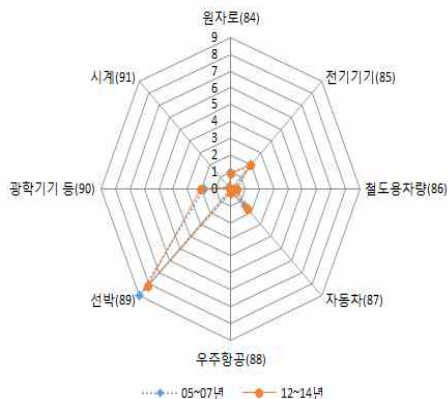


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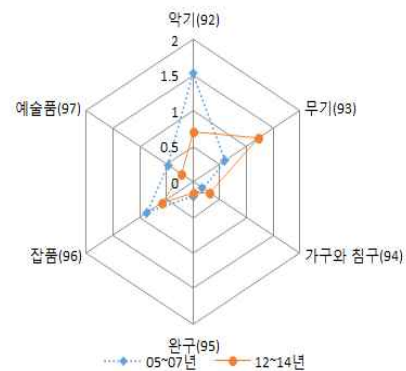
□ 기계류는 전반적으로 비교우위 품목이며, 잡제품은 비교열위 품목으로 분류되는 상황

- 기계류 중 원자로(84)는 0.97→0.92, 전기기기(85)는 1.99→1.97, 철도용차량(86)은 0.28→0.44, 자동차(87)는 1.46→1.65, 우주항공(88)은 0.11→0.25, 광학기기(90)는 1.80→2.07로 계산
- 잡제품 중 악기(92)는 1.53→0.70, 무기(93)는 0.60→1.23, 가구와 침구(94)는 0.17→0.31, 완구(95)는 0.21→0.16, 예술품(97)은 0.47→0.23을 기록

<그림 36>기계류



<그림 37>잡제품



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재가공

2

서비스 수출경쟁력

-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수입특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수출경쟁력은 약한 것으로 평가
- 여행서비스, 보험서비스, 지적권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수입특화 업종인 반면, '건설서비스'와 '운송서비스'는 수출특화 업종
 - 컴퓨터, 정보서비스는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되었으며, 개인·문화·여가서비스도 '14년 이후 수출특화로 전환

<표 9>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특화지수

| | 2000 | 2005 | 2010 | 2013 | 2015 |
|-------------|--------|--------|--------|--------|--------|
| 서비스 | -0.015 | -0.083 | -0.079 | -0.030 | -0.074 |
| 가공서비스 | 0.380 | -0.132 | -0.510 | -0.493 | -0.488 |
| 운송 | 0.092 | 0.072 | 0.125 | 0.108 | 0.049 |
| 여행 | -0.021 | -0.453 | -0.290 | -0.193 | -0.240 |
| 건설 | 0.666 | 0.685 | 0.678 | 0.615 | 0.636 |
| 보험서비스 | -0.363 | -0.626 | -0.263 | -0.176 | -0.123 |
| 금융서비스 | 0.182 | 0.533 | -0.075 | -0.226 | -0.089 |
| 통신, 컴퓨터, 정보 | -0.113 | -0.163 | -0.166 | 0.082 | 0.136 |
| 통신 | | | -0.196 | -0.237 | -0.039 |
| 컴퓨터 | | | 0.215 | 0.483 | 0.216 |
| 정보 | | | -0.588 | -0.065 | 0.110 |
| 지식재산권사용료 | -0.649 | -0.397 | -0.485 | -0.389 | -0.227 |
| 유지보수 | 0.624 | -0.310 | -0.505 | -0.820 | -0.034 |
| 기타사업서비스 | -0.141 | -0.168 | -0.344 | -0.229 | -0.220 |
| 연구개발 | | | -0.508 | -0.551 | -0.501 |
| 전문·경영·컨설팅 | | | -0.671 | -0.585 | -0.408 |
| 기술·무역·기타사업 | | | -0.233 | -0.109 | -0.153 |
| 개인·문화·여가 | -0.297 | -0.146 | -0.236 | -0.054 | 0.163 |
| 정부서비스 | 0.299 | 0.319 | 0.033 | 0.057 | -0.0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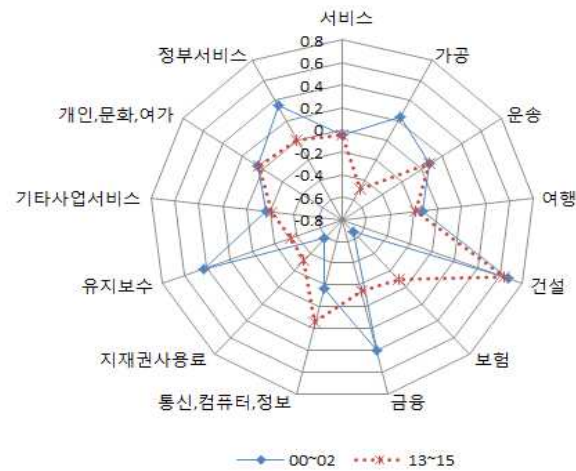
주: 한국은행 통계 DB자료를 재가공

- 서비스전체 무역특화지수는 금융위기전('00~02년) -0.046에서 금융위기 이후('13~15년) -0.040으로 소폭 하락
- 서비스 경쟁력 약세에도 불구하고,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와 보험서비스의

상승으로 대변

- 컴퓨터서비스와 정보서비스는 각각 '10년, '14년 이후부터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되었으며, 생산성이 높은 연구개발, 전문·경영컨설팅, 기술·무역 등 기타사업서비스는 수입특화가 지속
- 가공서비스와 금융서비스는 각각 '04년, '09년 이후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

<그림 38> 금융위기 전후 무역특화지수 변화



자료: 한국은행 통계 DB자료를 재가공

IV

평가 및 향후 시장전략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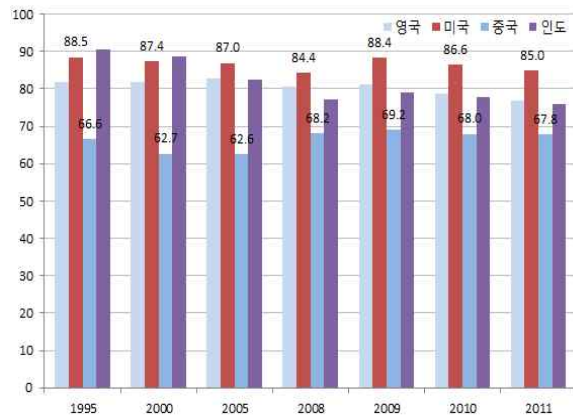
평가

- 지난 50년간 국가 중심·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무역 1조 달러를 시대를 견인하였으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감소로 일자리 창출은 미비
 -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수출전략으로는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수출의 국민 경제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
 - 더구나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은 세계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미국, 일본 등의 자국 산업 육성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어려운 상황
 - 전체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 17.1%, 기업 수는 약 9만 개에 불과해 수출의 대기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
 - * 중소기업 중앙회, 2015
 - ** 중소기업 수출 비중(%): 30.6('07) → 21.1('09) → 18.3('11) → 17.1('13)
 - 전체 근로자의 87.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용 비중이 낮은 대기업이 수출을 견인하여 수출과 고용의 괴리가 초래
-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내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연계고리 약화로 수출의 낙수효과는 감소되는 추세
 -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대부분이 기업의 현금자산으로 유보되어 있어, 국내 투자, 고용,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 '90년대 중반이후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은 오히려 하락
 - 우리나라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비중은 77.7%('95년)→67.0%('05년)→58.3%('11년)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
 - * '11년 기준 미국 85.0%, 일본 85.3%, 독일 74.5%이며, 중국 67.8%, 멕시코 68.3%, 인도 75.9%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

<그림 39>수출의 국내 부가가치창출도(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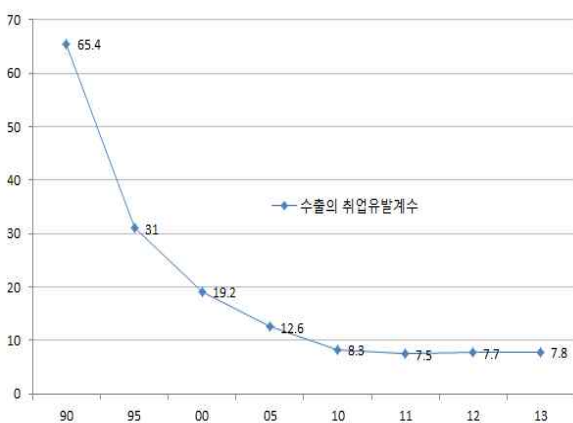
<그림 40>수출의 국내 부가가치창출도(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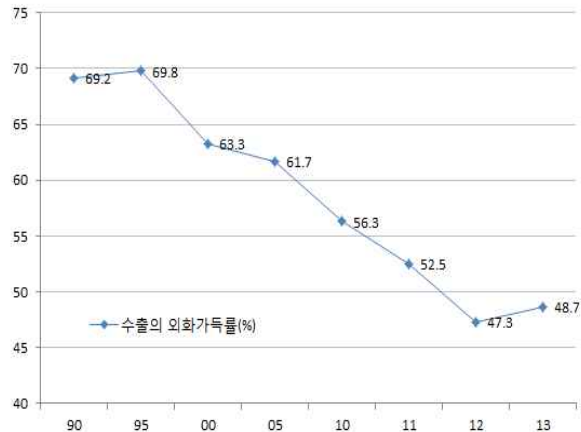
자료: OECD Tiva(2015.9)

- 최종수요 개별 항목별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0년 초반에 비해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특히 수출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부진
 - 수출 1단위 증가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크기는 0.70('90년)→0.54('13년)로 하락
 - 10억원당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65.4명('90년)→8.3명('10년)→7.8명('13년)로, '90년에는 수출(10억원)이 증가하면 고용이 65.4명 증가하였지만 '13년에는 고용이 7.8명 증가에 그치는 상황

<그림 41>수출의 취업유발계수



<그림 42>수출의 외화가득률(%)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5.6)

2

향후 시장전략

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대기업중심 수출해소

- 수출경쟁력 강화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수출기업화
 - 중소기업이 글로벌 수출기업이 되면 우리 경제성장,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
 - 중소기업이 글로벌가치사슬(GVC)과 FTA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새로운 통상환경에 부합하는 지원이 필요
 - * 세계 교역의 80%는 글로벌다국적기업(MNC)이 형성한 GVC를 통해 실현(UNCTAD, 2013)
 - * 중소기업 GVC 참여로 ① 글로벌 시장 접근성 향상; ② MNC로부터 기술·경영 노하우 전수, 교육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 ③ GVC 내 자체 GVC를 형성하는 lead firm으로 발전 가능
- '수출확대→고성장→고용확대'는 기업성장의 선순환구조이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필수요건
 -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연결되는 기업생태계의 진화 패턴을 확산시켜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
 - 특히, 고위험·고수익의 신산업 분야에서는 창의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프론티어를 개척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필수적
 - 소수 대기업 의존도를 완화하여, 글로벌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성장과 고용 잠재력을 확충할 필요

나 신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품목 다변화

- (유망품목) 성장이 두드러진 신산업의 수출기회를 확대하여 수출품목 다변화
 - (콘텐츠) 신흥국의 성장세로 세계 콘텐츠 시장확대 및 수출기회 증가
 - * 세계 콘텐츠 시장(PWC, 2015): 연평균 4.8%씩 성장하여 '19년 2조 3,310억불로 확대

- **(고급소비재)** 한류열풍과 품질향상으로 고급소비재 발굴·수출 확대
 - * (패션) 젊은층 공략을 위해 온라인 마케팅, 현지 인지도 향상 및 유통채널 구축
 - * (식품) 안전·고급 이미지로 고소득층 공략, 한류 마케팅을 활용하여 홍보 강화
- **(고부가가치산업)** 의약품헬스케어, ICT 신산업 분야의 급성장 전망
 - * 세계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14년 154억불에서 '19년 215억불로 증가(연평균 6.8%) 전망(BCC Research, '15년)
 - * '16년 ICT 신산업 성장률은 빅데이터(24.1%)와 클라우드(16.4%)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Gartner)
- **(에너지신산업)** 기후 변화 및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서 새로운 시장기회 확대
 - * 에너지 신산업 육성 로드맵 목표 설정('14년 → '17년: 누적기준): 시장규모(2,089억원 → 4조 6,300억원), 고용창출(1,127명 → 14,000명)
- **(프로젝트 산업)** 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생태도시 건설 등 프로젝트 활성화
 - * 전세계 스마트 시티 시장은 2020년까지 약 1조 5000억불 규모로 성장
 - * 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친환경 교통시스템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건설역량의 복합화 및 수출 플랫폼화 필요

□ **(서비스산업) 고용과 성장 모두를 달성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육성 필요**

- 내수위주의 포화된 국내 서비스시장을 벗어나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수요를 겨냥한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
-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R&D, 엔지니어링, 디자인, 물류 등 사업서비스*와 제조업의 융합추진
 - * 광고, 연구활동, 사업관련 전문서비스(법무, 회계,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광고·건축공학) 등
-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 적자를 주도하고 있는 사업서비스와 지재권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
- 사업서비스(경영, 회계, R&D, 법률자문, 컨설팅 등) 등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선진국과의 인수·합병(M&A) 등 적극적인 전략적 제휴를 고려

- 지적재산권 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응용 연구개발은 물론 기초 R&D에도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
- 특허기술에 대한 투자와 장기적 측면에서의 제조업 원천기술 확보하면서, 현재 우리 특허관리 기업들은 외국계에 비해 운용자금 규모가 작은 수준으로 향후 대형화·전문화가 필요

♣ <참고>사업서비스

- 사업서비스는 타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높고 최종소비보다는 생산과정의 중간재로서 투입비중도 높아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특징
- 사업서비스업 부가가치율(부가가치/총투입)이 58.0%로 전산업 35.4%(제조업 21.1%, 서비스업 52.3%)보다 높은 수준
- 사업서비스의 중간수요율(다른 산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수요/해당 산업의 산출액)은 70.9%로 제조업(58.9%)보다 높아 후방효과가 큰 특징
- 부가가치유발계수*도 사업서비스가 0.865('11년 기준)로 제조업 0.536보다 높은 상황
-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의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했을 때, 해당 산업과 타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파급되는 부가가치의 합을 의미

다 글로벌 가치사슬 차원에서 시장다양화 전략 추진

-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차원에서 선진·신흥시장 전략 차별화 수립
 - (주력시장) 수출규모가 크고 글로벌 기업이 대거 소재한 선진국으로서 세계시장을 겨냥한 테스트 베드시장이면서 FTA 활용 등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시장
 -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가치사슬 진입, 기술창업, FTA를 활용한 생산네트워크 재구성 등 지역별 테마를 활용한 진출확대
 - (신흥시장) FTA 활용, 시장개방, 개방특수 등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 중점 진출 대상국을 동태적으로 관리
 - ODA, 방산수출, 투자진출을 통한 산업개발, 전략물자 수입, 자원개발 등

각국별 특성에 맞는 패키지딜을 통해 포괄협력

□ 글로벌가치사슬차원에서 선진국·신흥국을 기능적 측면에서 접근

- 선진국은 소비재시장, 소재·부품, 혁신제품·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시장공략 확대 필요
 - 글로벌 경기부진 속에서도 선진국은 미국이 경기회복 주도, 일본·EU 등도 완만한 경기회복이 예상되면서 소비시장이 일정부분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
 - 전통적 성장모델의 한계 직면 → 기술혁신 통한 성장궤도 상향 필요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도입한 혁신상품*과 혁신공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돌입

♣ (사례) 선진국은 상품과 공정의 혁신을 통해 제조업 업그레이드 중

- * (미국) 신기술 표준화 및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 부활('11, 첨단 제조파트너십)
- * (독일) 사물인터넷 등 제조업과 IT기술 접목한 산업의 스마트화로 생산 혁신 달성('12, 산업 4.0)
- * (일본) IT 활용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통 기반기술 개발('15, 2015 일본재흥전략)

- 신흥시장은 시장별 특수, 생산기지, 산업다각화 등 기회요인 활용 공략 지속
 - '16년 경기부진 전망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선진국 2.2% vs 신흥국 4.5%, IMF 기준), 새로운 소비인구 유입도 확대
 - * '16년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4.5%로 선진국(2.2%)의 2배 이상(중국, 인도는 6-7%대 전망)
 - ** '15-'25년간 소비대열에 합류하는 18억명 중 50% 이상이 신흥국 소비자(McKinsey, '15.9)
 - 경기부진 가운데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의 기회요인을 포착하여 시장맞춤형 전략 추진
 - 한류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거나 FTA 체결을 통해 진출이 용이한 국가 또는 제재해제 등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위주 공략지속

참고 1

수출산업의 산업분류 기준

| 산업분류 | HS코드 |
|----------|---|
| 농수산물 | 1~24 |
| 비금속 | 25~26, 68~70, 7101~7105 |
| 광물 | 25~26 |
| 시멘트, 도자 | 68~70 |
| 보석 | 7101~7105 |
| 석유화학 | 27~40 |
| 석유제품 | 27 |
| 화학제품 | 28~39 |
| 고무 | 40 |
| 전지 | 8506 |
| 섬유의복 | 41~43, 50~67 |
| 가죽, 모피 | 41~43 |
| 섬유 | 50~55 |
| 의류 | 61~62 |
| 목재 | 44~49 |
| 철강금속 | 71~83(7101~7105는 보석으로 비금속) |
| 철강, 철강제품 | 72~73 |
| 기계류 | 82~89(8415, 8418, 8443, 8450, 8470, 8471, 8473 제외) |
| 기계류 | 84(8415, 8418, 8443, 8450, 8470, 8471, 8473 제외) |
| 자동차 | 87 |
| 선박 | 89 |
| 전기전자 | 85, 90, 8415, 8418, 8443, 8450, 8470, 8471, 8473 |
| 컴퓨터관련 | 8443(프린터), 8470(계산기), 8471(컴퓨터), 8473(컴퓨터부품) |
| 가전제품 | 8415(에어컨), 8418(냉장고), 8450(세탁기), 8516(전열기), 8518~21(오디오, 비디오), 8527~28(라디오, TV) |
| 반도체 | 8541, 8542 |
| LCD 등 | 9013 |
| 정밀기기 | 90(9013 제외), 91 |
| 기타 | 92~99 |

자료: 노원중 외(2016), 한중 경쟁력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p27.

참고 2

수출경쟁력 측정방법

-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 TSI)는 수출에 있어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특정시장(대세계·대미국)간 교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성
 - 이때 수출·입 차이가 교역규모(수출·입 총액)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수출·입 차이를 교역규모로 나누어 준 지수
 - 무역특화지수(TSI_{ij})를 이용하여 앞 단계의 품목군 선정을 보완하기 위해 TSI_{ij} 를 식 (1)와 같이 구하고 TSI_{ij} 값을 <표 5-1>에 적용하여 품목군을 구분

$$TSI_{ij} = \frac{(X_{ij} - M_{ij})}{(X_{ij} + M_{ij})} \dots\dots\dots \text{식 (1)}$$

여기서 j 는 교역대상국

※ 단, 양국간 무역특화지수의 전체평균이 負의 값으로 계산될 경우 <표 5-1>의 분류기준에서 무역특화지수의 평균(\overline{TSI})을 '0'으로 산정

-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지수는 비교우위를 반영하는 수출 또는 순수출(수출-수입)의 무역변수 등을 국가간 또는 산업간 비교를 위하여 상품의 중요도와 국가의 크기 등으로 조정한 무역성과지수
 - RCA 지수는 식 (2)으로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특정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혹은 일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지수로 나타냄으로서 무역특화지수를 보완해 주는 측면이 있음.

$$RCA_i = \frac{X_j^i / X_w^i}{X_j / X_w} \dots\dots\dots \text{식 (2)}$$

여기서 i 는 HS 코드 2단위 품목이며 j 는 특정국가(한국), 그리고 w 는 전세계를 의미함. X 는 특정국가(한국)의 총수출액

참고 3

HS 2단위 품목명

| 품목분류 | 코드 | 품목명 |
|----------------|----|---|
| 농수산물 | 1 | 산동물 |
| | 2 | 육 ,식용설육 |
| | 3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 | 4 |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식용의 동물성생산품 |
| | 5 | 기타 동물성생산품 |
| | 6 | 산수목, 기타 산식물, 구근류 ,절화 ,장식용 잎 |
| | 7 |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
| | 8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
| | 9 | 커피, 차, 마태 ,향신료 |
| | 10 | 곡물 |
| 농수산물 1차 가공품 | 11 | 제분공업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우텐 |
| | 12 | 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 과실, 공업용 의약용 식물, 짚, 사료식물 |
| | 13 | 락, 검, 수지, 기타 식물성 액즙과 엑스 |
| | 14 |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생산품 |
| | 15 |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 식물성의 납 |
| | 16 |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의 조제품 |
| | 17 | 당류와 설탕과자 |
| | 18 | 코코아, 코코아조제품 |
| | 19 |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
| | 20 | 채소, 과실 ,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부분 조제품 |
| | 21 | 각종 조제식료품 |
| | 22 | 음료, 알코올 ,식초 |
| | 23 |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
| | 24 |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
| 광산물 1차 가공품 | 25 |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
| | 26 | 광, 슬랙, 회 |
| | 27 |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 성왁스 |
| | 28 | 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 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
| 화학제품 | 29 | 유기화학품 |
| | 30 | 의료용품 |
| | 31 | 비료 |
| | 32 | 유연, 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안료 ,페인 |

| | | |
|-----------|----|--|
| | | 트, 퍼티, 잉크 |
| | 33 |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
| | 34 | 비누, 유기계면 활성제,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조형용 페이스트 |
| | 35 |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굴루우 ,효소 |
| | 36 |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합금, 특정가연성조제품 |
| | 37 |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
| | 38 |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
| | 39 |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 | 40 | 고무와 그 제품 |
| 가죽 및 종이제품 | 41 | 원피 (모피제외)와 가죽 |
| | 42 | 가죽제품, 동물거트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기타 유사제품 |
| | 43 | 모피,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
| | 44 |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
| | 45 | 코르크와 그 제품 |
| | 46 | 짚, 에스파르토,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지조세공물 |
| | 47 | 목재펄프, 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지,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 48 | 지와 판지, 제지용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
| | 49 | 인쇄서적 .신문 .회화 .기타 인쇄물 ,수제문서 .타이프문서 ,도면 |
| 섬유 및 의류 | 50 | 견 |
| | 51 | 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
| | 52 | 면 |
| | 53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
| | 54 | 인조장섬유 |
| | 55 | 인조단섬유 |
| | 56 | 워딩, 펄트, 부직포, 특수사, 끈, 코오디지, 케이블과 그 제품 |
| | 57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
| | 58 | 특수직물, 더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테피스트리,트리밍과 자수포 |
| | 59 |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
| | 60 | 메리야스편물과 뜨게질 편물 |
| | 61 | 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
| | 62 | 의류와 그 부속품 |
| | 63 | 기타 방직용섬유제품, 중고의류 ,중고 방직용섬유제품, 냅마 |

| | | |
|--------------|----|--|
| | 64 |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
| | 65 | 모자류와 그 부분품 |
| | 66 |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
| | 67 |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
| 비금속 광물제품 | 68 | 석, 플라스틱,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
| | 69 | 도자제품 |
| | 70 | 유리와 유리제품 |
| | 71 |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
| 금속 및 동 제품 | 72 | 철강 |
| | 73 | 철강의 제품 |
| | 74 | 동과 그 제품 |
| | 75 | 니켈과 그 제품 |
| | 76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 | 78 | 연과 그 제품 |
| | 79 | 아연과 그 제품 |
| | 80 | 주석과 그 제품 |
| | 81 |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
| | 82 |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붙이, 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
| | 83 |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
| 기계류 | 84 |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 | 85 | 전기기와 그 부분품 |
| | 86 |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
| | 87 |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88 |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
| | 89 | 선박과 수상구조물 |
| | 90 |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
| 잡제품 | 91 | 시계와 그 부분품 |
| | 92 |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93 |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94 |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
| | 95 |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96 | 잡품 |
| | 97 |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

참고문헌

- 김희철, 2011, 한국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제29권 제1호.
노원중, 2016, 한·중 경쟁력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한국은행 경제통계, 산업연관표.
CEIC DB.
IMF 통계 DB.
OECD Tiva.

작성자

◆ 글로벌전략지원단 고희채 전문위원

Global Strategy Report 16-005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발행인 | 김재홍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6년 6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8-11-87219-81-1(95320)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